

■ 11월 둘째 주,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교재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 여정"

□ 이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

이 교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을 깊이 있게 훈련하기 위한 개인 묵상 자료입니다.

- 매일 정해진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세요.
- 각 단계를 천천히, 정직하게 실천하세요.
- 빈칸에 자기 생각과 기도를 기록하세요.
- 한 주를 마친 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 이 주의 말씀 / 열왕기상 1장 11 ~ 14

간절히 기도하는 데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기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기도해도 눈앞의 고난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되묻게 됩니다. “내 기도가 부족한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우리는 종종 기도를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법처럼 응답해 주실 거라는 주술적인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힘’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도 응답의 근거가 우리의 간절함이나 기도의 양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 왕조 계승의 위기 상황에서 밋세바와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기도합니다.

이들의 행동에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존경과 겸손의 태도:

밋세바는 다윗 왕에게 지극한 존경으로 절했습니다. 이는 인간 왕에게도 합당한 태도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감정에 앞서,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경건한 예배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세우기보다, 다윗 왕에게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신 약속’을 상기시켰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성령님의 인도하심:

밋세바가 아뢰는 때, 나단 선지자가 때마침 등장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나단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의 바른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도우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인 소원을 관철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순종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 노력해도, 죄인 된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이기적인 소원과 자기 의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근거는 우리의 간절함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중보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언약의 성취자이시며,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 사역을 통해 보좌 앞에 상달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기도의 핵심입니다.

1. 겸손한 기도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기도할 때 나의 소원 목록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거룩함, 주권, 사랑)을 먼저 묵상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소원 대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아뢰십시오. 밋세바가 왕의 맹세를 그대로 전했듯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겸손한 약속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2. 위기를 복음으로 해석하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통로”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당신의 성취를 이루신다”는 복음적 진리를 붙잡고,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성숙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배우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복과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

□ 월요일 | 겸손한 태도 훈련 (존중)

□ 오늘의 목표

하루의 첫 기도 5분 동안, 나의 소원 대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 본문 말씀: 시편 8편 1~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 묵상 가이드

월요일 아침, 우리의 기도는 종종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 사고 없게 해 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단 5분만, 내 필요가 아닌 하나님 자체에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전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 실천 질문

Q1. 하나님의 성품 중 오늘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것은 무엇인가요?

- *"거룩하심 - 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순결하심"*
- *"주권 -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 *"신실하심 -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 *"오래 참으심 - 실패하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Q2. 오늘 아침, 구하기 전에 먼저 떠오르는 나의 요청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요?

- *"오늘 OO일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경배합니다."*
- *"당장 급한 일이 산더미인데, 5분이 아깝지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립니다."*

Q3. 실천 체크 - 오늘 아침 5분 예배 기도를 했나요?

- [] 했습니다 (느낌: _____)
- []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유: _____)
- [] 잊어버렸습니다 → 지금이라도 1분만 드러볼까요?

□ 오늘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먼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묵상한 성품)_____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화요일 | 약속을 내어놓는 기도 훈련 (말씀)

□ 오늘의 목표

삶의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정하고, 관련된 성경 속 약속 3가지를 찾아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기

□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0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 묵상 가이드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기도가 내 생각의 반복일 때 공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기도는 다릅니다.

오늘은 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는 훈련입니다.

☞ 실천 질문

Q1.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가장 힘든 문제 한 가지는?

- "직장 - 3개월째 상사와 갈등 중입니다. 출근이 두렵습니다."
- "재정 - 카드값이 감당이 안 됩니다. 빚 갚을 방법이 안 보입니다."
- "자녀 - 중2 아들이 방문을 잠그고 대화를 거부합니다."
- "건강 - 만성 통증으로 일상이 힘듭니다."
- "신앙 -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Q2. 이 문제와 관련된 성경 말씀(약속) 3가지를 찾아 기록해 보세요.

□ 도움말:

- 성경 검색 앱 활용
- 주제별 성경 구절 검색 (예: "염려", "관계", "재정")
- 생명의 삶, 큐티 자료 참고

□ 예시 답변

1. 빌립보서 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2. 잠언 16:7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3. 시편 37: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Q3.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 예시 답변:

"주님, 빌립보서 4:6-7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는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매일 아침 염려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①상사와의 관계 회복 ②출근할 때의 평안입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구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 나만의 기도 노트

내 문제: _____

말씀 1: _____

말씀 2: _____

말씀 3: _____

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자유롭게 작성)

□ 현실 체크

"말씀을 찾았는데 솔직히 믿어지지 않아요."

→ 괜찮습니다. 정직한 반응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막 9:24)

이것도 기도입니다.

"말씀은 좋은데, 내 상황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하나님께 여쭙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상황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 수요일 | 성령의 감동에 순종 (멈춤)

□ 오늘의 목표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는 구절이 나오면 읽기를 멈추고, 3분 이상 무릎 꿇고 즉시 기도하기

□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 묵상 가이드

우리는 종종 계획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 "오늘은 시편 3장까지 읽어야 해"
- "이번 주는 로마서를 끝내야 해"

그런데 성령님은 때때로 한 구절로 우리를 멈춰 세우십니다.

오늘은 속도가 아닌 깊이의 훈련입니다.
성령님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연습입니다.

☞ 실천 질문

Q1. 오늘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멈춰진 구절이 있었나요?

- "시편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 지금 제 상황 같았습니다."
-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 눈물이 났습니다."
- "야고보서 1:2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 솔직히 이해 안 가지만 마음이 쿵 했습니다."

Q2.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 현실적 예시:

좋은 반응:

- "읽기를 멈추고 그 구절을 3번 더 읽었습니다."
- "잠깐 묵상하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 "노트에 적고 '왜 이 말씀이 와 닿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놓친 반응 (정직하게):

- "와닿았는데 그냥 계속 읽었습니다. 분량을 채워야 해서..."
- "감동을 느꼈지만, 무시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 "'나중에 묵상해야지' 하고 넘겼는데 잊어버렸습니다."

Q3. 만약 성령님께서 오늘 그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 주님, 제가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인가요?"
- "두려워하지 말라' - 내일 검사 결과 때문에 떨고 있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필요한 때가 올 것 같습니다."

□ 오늘의 실천

만약 아직 성경을 읽지 않으셨다면:

1. 지금 성경을 펴세요. (시편)
2. 천천히 읽으세요.
3. 마음이 머무는 구절이 나오면 멈추세요.
4. 그 구절을 3번 읽고, 3분 기도하세요.

만약 이미 읽으셨다면:

1. 오늘 읽은 본문 중 기억나는 구절이 있나요?
2. 지금 다시 그 구절로 돌아가세요.
3. 무릎 꿇고 3분만 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 말씀 기록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구절: _____

내용: _____

느낌: _____

기도: (이 말씀으로 드린 기도를 자유롭게 기록)

□ 현실 체크

"아무 감동도 없었어요. 그냥 글자만 읽혔어요."

→ 그런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오늘은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도와주세요."

"감동은 있었는데 그게 정말 성령님의 음성인지 확신이 안 서요."

→ 이렇게 분별해 보세요:

- 그 감동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와 일치하는가?
- 나를 교만하게 하는가, 겸손하게 하는가?
- 두려움을 주는가, 평안을 주는가?

□ 목요일 | 위기 해석 전환 훈련 (소망)

□ 오늘의 목표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나 고난을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로 선포하며 기도하기

□ 본문 말씀: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묵상 가이드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어려운 훈련입니다.

내 위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재해석하는 연습입니다.

☞ 실천 질문

Q1.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나 고난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0대에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요?"
- "남편과의 관계가 최악입니다. 이혼을 생각할 정도입니다."
- "사업 실패로 빚이 8천만 원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앙인인데 왜 이럴까 자책됩니다."
- "부모님 치매가 심해졌습니다. 돌봄이 한계입니다."

Q2. 이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솔직한 감정은?

- "두렵습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도 화가 납니다."
- "억울합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알까 봐."
-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 중요: 이 감정들은 죄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욥도, 예레미야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솔직함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Q3.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선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도움말:

-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마세요.
- "모르겠습니다"도 괜찮은 대답입니다.
- 작은 가능성이라도 적어보세요.

위기 상황의 경우:

-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건지도."
- "20년 직장생활 하며 가족과 시간을 못 가졌는데, 회복의 기회일 수도."
- "아직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전환점이었다고 말할 날이 올까요?"

우울한 상황의 경우:

- "이 아픔을 통해 같은 고통 겪는 사람을 이해하게 될지도."
- "겉으로만 신앙 생활했던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일 수도."
-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Q4. 오늘,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 예시 기도:

정직한 기도 (A유형):

하나님, 솔직히 이 상황이 어떻게 선을 이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앞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
믿고 싶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상황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언제인지, 어떻게 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선포적 기도 (B유형):

하나님, 이 위기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의 시작임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저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통로입니다.

□ 나의 위기 재해석

내 위기:

내 감정 (솔직하게):

하나님의 가능한 선한 계획 (작은 가능성이라도):

오늘의 기도: (여기에 자유롭게)

현실 체크

"솔직히 이런 말 듣기 싫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 괜찮습니다. 읊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직한 분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화납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 훈련을 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 금요일 | 인내와 기다림 훈련 (성숙)

□ 오늘의 목표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도하기

□ 본문 말씀: 시편 27:14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 묵상 가이드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1년째, 2년째, 어떤 이는 10년째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 결혼
- 자녀의 회심
- 병의 치유
- 경제적 돌파구
- 관계 회복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은혜를 배우는 날입니다.

☞ 실천 질문

Q1. 가장 오래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제목은?

- *"결혼 - 7년째 기도 중입니다.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 *"불신자 남편의 구원 - 15년째입니다."*
- *"자녀의 신앙 회복 - 3년째 교회 안 나옵니다."*
- *"빛 청산 - 5년째 기도하는데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 *"만성질환 치유 - 10년째 기도하지만 나아지지 않습니다."*

Q2. 응답이 지연될 때 내 마음의 솔직한 상태는?

- *"처음엔 간절했는데, 이제는 기도하기도 지칩니다."*
-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나 의심됩니다."*
- *"다른 사람은 빨리 응답받는데 왜 나만... 비교됩니다."*
-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는 말이 이제는 짜증이 납니다."*
- *"포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고요."*

Q3.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게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 도움말:

응답은 아직이지만, 나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찾아보세요.

결혼 기도 7년의 경우:

- "처음엔 조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 "독신으로 사는 법을 배웠고, 그것도 의미 있음을 알았습니다."
- "솔직히, 큰 변화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남편(자녀) 구원 기도 15년의 경우:

- "남편을 바꾸려던 제가 먼저 변했습니다."
- "조급함 대신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 "아직도 답답하지만, 예전보다는 평안해졌습니다."

Q4.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요?

-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되어도, 하나님이 아시는 최선의 시간이 있다는 것"
- "기다림 자체가 응답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
- "내 계획 < 하나님의 계획"
-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배워가는 중입니다"

□ 오늘의 실천

인내의 기도 다시 드리기

1. 과거 확인: 처음 이 제목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 언제부터였나요?
 - 그때와 지금, 나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2. 현재 고백: 지금 내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 "주님, 사실 지쳤습니다."
 - "주님, 여전히 이것이 간절합니다."
 - "주님, 의심이 듭니다."
3. 미래 신뢰: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겠다고 선포하세요.
 - "제 시간이 아닌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 "응답의 방식도 주님께 맡깁니다."

□ 나의 기다림 기록

기도 제목:

기도 기간:

이 기간에 내게 일어난 변화:

오늘의 기도

하나님,

_____를 위해 ___년째 기도합니다.

솔직히 (내 감정)_____.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빨리'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실 체크

"솔직히 이제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 로마서 8:26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말을 잊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금방 응답받던데, 나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비교는 신앙의 독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기다리다가 너무 늦으면 어떡하죠?"

→ 하나님께는 '너무 늦음'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보기엔 늦었지만, 더 큰 영광을 위한 때였습니다.

□ 토요일 | 중보 기도와 감사

□ 오늘의 목표

한 주간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신 성령님을 기억하며, 가족 · 교회 · 이웃을 위해 말씀에 근거한 중보 기도 드리기

□ 본문 말씀: 에베소서 6: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 묵상 가이드

한 주간의 기도 훈련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돌아보니, 이번 주 성령께서 함께하셨습니다.

- 월요일, 예배의 기도를 도우셨고
- 화요일, 말씀으로 간구하게 하셨고
- 수요일, 말씀 앞에 멈춰 서게 하셨고
- 목요일, 위기를 다르게 보게 하셨고
- 금요일, 기다리는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내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 실천 질문

Q1. 이번 주, 기도 훈련을 돌아보며

- 월요일 (예배): □□□□□ (5점 만점)
 - 느낀 점: _____
- 화요일 (말씀): □□□□□
 - 느낀 점: _____
- 수요일 (감동): □□□□□
 - 느낀 점: _____
- 목요일 (위기): □□□□□
 - 느낀 점: _____
- 금요일 (인내): □□□□□
 - 느낀 점: _____

□ 현실적 예시:

- "월요일: □□ - 예배 기도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 "화요일: □□□□ - 말씀 찾는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 "수요일: □ - 솔직히 잊어버렸습니다."
- "목요일: □□□ - 힘들었지만 시도했습니다."
- "금요일: □□□□□ -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Q2. 이번 주 성령님께서 특별히 도우신 순간이 있었나요?

- "화요일, 딱 필요한 말씀을 찾게 하셨습니다."
- "목요일, 위기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 "기도하기 싫을 때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일주일을 지나왔으니 도우셨겠죠."

□ 중보 기도 리스트

이제 시선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립니다.

1. 가족을 위한 기도

대상: _____ (이름)
 상황: _____
 성경 말씀: _____
 기도:

(예시)

하나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남편 ___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 11:28) 말씀처럼
 남편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소서.

2. 교회/소그룹을 위한 기도

대상: _____ (이름/그룹)
 상황: _____
 성경 말씀: _____
 기도:

(예시)

하나님, 우리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모임이 아닌,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진짜 교제가 일어나게 하소서. (행 2:42)

3. 이웃/직장 동료들을 위한 기도

대상: _____ (이름)
 상황: _____
 성경 말씀: _____

기도:

(예시)

하나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팀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소서. (마 5:16)

4. 한국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

(예시)

하나님,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형식과 전통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땅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소서.

중보 기도 실천 기록

이번 주 중보 기도 했던 사람: (체크)

- [] 배우자/가족
- [] 자녀
- [] 부모님
- [] 목사님/리더
- [] 소그룹 멤버
- [] 아픈 사람
- [] 불신자 친구/동료
- [] 선교사
- [] 국가/사회

다음 주를 위한 제안:

한 사람을 정해서 1주일 동안 매일 중보기도 하기

- 이름: _____
- 이 사람을 위해 매일 ___시에 기도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_____

더 나아가기:

그 사람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이번 주 ___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위로가 됩니다.

□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간구해 주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 애썼습니다.
(실패한 날들도, 성공한 날들도) 모두 은혜였습니다.

이제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기도가 아닌, 성령님의 기도가
내 입을 통해 나오게 하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주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일 | 결단과 예배의 회복

□ 오늘의 목표

오늘 들은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고, 한 주간의 기도 생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 본문 말씀: 로마서 8:26-28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목상 가이드

1. 설교 메시지 정리하기

-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 가장 마음에 와닿은 한 문장은?
-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면?

2. 나의 기도 생활 점검

- 지난 한 주간, 기도는 어떠했나요? (솔직하게)
-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은?

☞ 실천 질문

Q1.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다."
- "하나님은 내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 "기도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Q2. 이번 주 나의 기도 생활 목표 3가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세요.

-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추상적)
- "매일 아침 7시에 10분씩 기도 시간 갖기" (구체적)
- "화요일, 목요일 점심시간에 5분 산책 기도하기"
-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 3가지를 기도로 고백하기"

Q3. 이번 주 성령님께 특별히 도움을 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 "직장 상사와의 관계 -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아이 진로 문제 -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 "교회 섬김 -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저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친히 도우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번 주, 제 기도 제목은 _____입니다.

제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제 기도의 동반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점검 및 다짐

이번 주 실천 체크

요일	실천 여부	별점	한 줄 소감
주 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이번 주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가장 은혜받은 날:

가장 힘들었던 날:

성령님께서 특별히 도우신 순간:

다음 주 다짐

이번 주 배운 것을 다음 주에는:

- []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겠습니다.
- [] 기도 파트너를 만들어 함께 하겠습니다
- [] 새로운 기도 습관: -----

다음 주 성경 읽기 계획

어디를 읽을지 정해보세요:

- [] 시편
- [] 복음서 (마태/마가/누가/요한)
- [] 바울서신
- [] 기타: -----

□ 맺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번 주 훈련을 끝까지 완주하셨다면, 축하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셨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기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 기도가 막힐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

기도 시작이 어려울 때:

-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응답이 안 올 때:

- "하나님, 아직도 기다립니다."
- "이해는 안 되지만, 신뢰합니다."
-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

- "하나님, 지쳤습니다. 도와주세요."
- "더 이상 말이 안 나옵니다. 성령님께 맡깁니다."
- "하나님만이 제 소망입니다."

감사할 때:

- "하나님, 이 작은 것도 은혜입니다."
-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 로마서 8:26 -

당신의 기도 여정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십니다.